

에스겔8강

아버지 하나님 옛날 노아를 방주에 문을 닫고 숨겨 두셨다가 심판이 끝난 후에 이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에 온전히 하늘로 들어 올려서 이 땅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 소망 속에 오늘도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빛을 비칠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의 오시는 것이 오직 소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의 군사로 용사들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아버지 하나님 씨디(CD)를 들으면서 저들의 마음을 다짐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의 때를 다 면하는 축복된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있고 그가 내게 말씀하시를 "일어나서 평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말하리라."하시기에, 내가 일어나서 평야로 나갔더니, 보라, 주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과 같더라. 내가 옆드렸더니 그때에 그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고하여 말씀하시니라. 가라, 네 집 안에서 문을 잠그라. 그러나 오 너 인자야, 보라, 그들이 네게 줄을 대어 그것들로 너를 묶으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가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할 것이요, 네가 병어리가 되어 그들에게 책망 자가 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할 때, 내가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하라.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는 것을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여기서 평야라는 곳은 시날 산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시날 평원에 시날 평원에 거기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바벨탑을 지었죠. 그래서 인간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정말 엄청난 도시 문명을 거기에 건설했죠. 그 당시 문명이 찬란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왕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있는 곳을 보다가 결국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손톱 발톱이 막 붙어나 가지고 7년 동안을 고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중심 인본주의의 산실이에요 바벨론이 그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보다도 성경의 권위 보다도 사람의 권위를 더 높이 세우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다르게 바벨론이 아닙니다. 보면 큰 바벨론이 될 로마 케톨릭의 교황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과 자기 생각이 틀리면 자기 생각의 말이 옳다고 그리고 케톨릭 신자들은 그 분은 죄가 없다고 그러합니다. 세상에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러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바로 어둠 가운데 그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옛날에 그 바벨론이 세웠던 그 반역하였던 장소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던 그 바벨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납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타납니다. 큰 바벨론이 무너지죠, 계시록 18장에 무너지집니다. 그리고 19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두 번 더 있었죠. 1장 4절에 있었구요. 또 앞으로 10장 1절로 15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때 그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속에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공 안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 충만해 지죠.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그러나 바람이 없으면 굴러 가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충만한 상태가 되었죠. 어떤 날은 생각도 없습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신약적인 의미에서 성령충만과는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구원 받은 사람에게 그 순간 성령이 안으로 들어 가서서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십니다. 영원히,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성령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함께 계시지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분을 따라 가지 않고 그 분이 자신을 주관하도록 내어 드리지 않으면 충만한 상태가 없어집니다.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맘대로 무시하죠.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하는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기록하셨죠,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전파 할 때 계속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계속 충만하게 임하죠. 에스겔에게 왜 성령이 안으로 들어 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지 괜히 성령께서 심심해서 들어 간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그랬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요 또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닥칠 일들 장래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결국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다 알아요 휴거도 알고 환란도 알고 천년왕국도 알고 영원세계도 알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앞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무슨 꿈을 꾀서 아는게 아니고 기도 할 때 환상을 봐서 아는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게 되면 말씀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약적으로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 갔다가도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면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인을 쳤기 때문에 씰(Seal)했다. 봉인을 했다. 인 두로 지진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 하면 인두로 지진 것을 생각하는데 씰을 한 거예요 씰을 한 거예요 완전히 집어넣고 들어오시고 완전히 봉함을 한 거예요 주님이 봉함을 하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을 보세요.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악신이 그리고 다윗은,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벌벌벌 떨어졌습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안에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11절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하면 슬퍼요 그 성령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너무나 점잖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하면 가만 두세요 가만 두세요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이 맘대로 막 그냥 행하면 겁이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경험해 봤어요 사람들이 악해 지고 그러면 겁이 나요 겁이 나서 숨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요 성령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충만하라 이걸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하라 그 얘기는 뭐죠 그 분께 온전히 순종해라 입 밖에 어떤 말도 내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너희가 무엇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우리가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모두가 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 분에게 의탁해야 된다. 충만하시도록 내어 드리라 이런 얘기에요 우리 마음을 말이죠, 우리 영을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 하라 이걸 명령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요 구할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구해야 되지 나 기분 좋으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철야기도만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 걸로 착각해요 사람들이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고 앞으로 될 일을 알린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분의 오심을 증거하고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성령 충만이 뭐냐 책도 많이 써 내고 그러는데 너무나 간단해요. 책 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방에 들어가게 하고 문을 잠그 버렸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완전히 갇힌 거예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얘기해도 안된다. 참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위로를 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 놓습니다. 인간적인 말은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만 그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죠. 자의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 동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했죠. 그들이 너를 줄을 대어 그것들로 너를 묶는다. 너를 퐁퐁 묶는다.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옛날 빌립의 딸들이 성령께서 그 허리 띠 임자가 묶일 것을 얘기 했죠.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 했죠 그걸 알면서도 사도바울은 올라가서 체포가 됐죠. 그들이 너를 줄을 대어 너를 묶으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는 꼼짝 못 할 것이다 꼼짝 못 할 것이다. 주님께서도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 하시리라 그 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며 무엇이냐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 주시리라.' 성령님은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는 자의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주신 말씀

외는 안 전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가 되서 가지고 서로가 순종하시는 데 하물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반역하는 행위입니까 이게 반역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했다는거 요즘 크리스찬들이 반역하면서도 자기들이 반역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26절 보니까 또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할 것어요. 네가 병어리가 되어 그들에게 책망 자가 되지 못 하리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아니 뽕뽕 방에다가 묶어 가지고 꼼짝도 못 하게 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 버리니까 말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병어리가 되버린 거예요 일시적으로 병어리가 된 거죠. 이거야 말로 너희 맘대로 못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편지 할 때마다 예수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은 예수그리스도의 종, 노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그리스도를 영접 하는 게 뭐죠?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회개도 없이 그런 결단도 없이 입으로만 하는 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결단을 하고 나는 주님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맘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이 들어오시지 그저 종교적으로 그냥 집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목사 되려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안 들어 가십니다. 신학교 다녔다고 들어 가시는게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분이 창조주 인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까지 나 자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회개를 하고 이제는 주님 밖에 없습니다. 이 몸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1985년에 그렇게 몸서리치면서 밤에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냥 성령이 들어오시더라구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거듭나라는 메시지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데나 안 들어가십니다. 절대 안 들어가십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을 때 피가 뿌려져 가지고 양심이 깨끗해 질 때 들어가시지 죄가 있는 곳에 들어가실 수 없는 게 죄가 있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시면 그 사람은 즉사하고 맙니다. 즉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가서 내 말을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뽕뽕 묶어 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네게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는 것을 그만 두는 자는 그만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주님이 말을 할 때 입을 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랬죠. 너희는 앞으로 핍박을 받을 텐데 네가 박해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그 시에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선교지를 다녀보면 교회를 방문해서 집회를 할 때 뽕뽕 앉으면 그 때 말씀을 줍니다. 그 때, 목회지와 달라요 목회지는 양육하는 곳이죠. 그러나 거기는 선포하는 곳이죠. 그 주님이 주신 것을 선포해 버려야 됩니다. 원고가 없죠. 그냥 선포하는 거죠. 어디든 길거리 나가도 그렇고 그냥 선포하게 되면 줄줄줄 나옵니다. 스테반이 얼마나 멋진 설교를 했습니까. 뭐 스테반이 원고를 써가지고 했나요? 집사님이 나가니까 그냥 얘기했고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집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듣는 것을 그만 두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라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듣지 못 하는 자들은 할 수 없어요. 떠나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하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 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개인 간증들 듣기 좋아해요 연애 인들 와 가지고 간증, 연애 인들 간증하면 연애 인들 보러 오지 주님 보러 옵니까 그런 곳에는 메어 터지게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곳에는 죽어도 안 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대로 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두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하나님께서 말씀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라. 날좀 보소 이렇게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죠.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

기해야 되는 거요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내가 말씀을 증거 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호소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득 되도록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나타나서 가지고 예수를 증거 해서 그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주님을 믿게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최 권능 목사가 예수 천당 그래도 역사했답니다. 그 분이 무식한 사람 이거든요. 신학교에서 낙제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를 붙혀 주셨어요. 성령께서 요즘에 이런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매끄러운 말로, 전도 훈련받는 것 보면 처음에는 일반적인 말을 하래요 어떻게 사십니까 고생이 많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라는 얘깁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집집마다 전도할 때 엘 에이(LA)에서 전도할 때 문을 안 열어 주잖아요 그러면 발을 뺨뺨 쏙 드리 밀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쏙 들이 밀면서 내가 5분만 얘기하고 가겠다고 앉아 가지고 복음 전하죠. 그럼 요렇게 듣고 영접을 해요 우리가 그들이 거절 할 때에 마귀가 꺼집어 들인다고요 우리도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요즘에 엘에이 시큐리티 때문에 하다보면 쫓겨나고, 쫓겨나고 한 동안 토요일 마다 집집마다 두드리며 전도 했는데 저 쪽에 있을 때 여기 아파트 많이 다녔어요. 정말 사단이 퐁퐁 묶어 났어요. 사람들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주님께서서는 3장이 끝나는 여기 까지만 해도 한 두 번 말씀 하신게 아닙니다. 2장 4절에서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만 얘기하라. 또 3장 4절에서도 그들에게 내말을 고하라 또 3장 17절에서도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 하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이거 굉장히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잠시 병어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예 입을 열지 않도록 하는 엄청난 훈련입니다. 우리도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앞에 가면 하나님은 저 입을 꼭 다물게 해요 절대 못 열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얘기해 봤자 안 들을 꺼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복음 안 전했습니다.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창녀들 세리들 또 병든자들 마귀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죠 그저 밖으로 도셨어요 거지대장처럼 거지 왕 초처럼 다녔어요 우리 주님은 말이에요 그 때 당시는 그렇게 다녔어요. 거지죠 거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식한 사람 끌고 다니면서 저게 하나님이야?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 때 태어났어도 아마 십자가에 못 박았을거예요. 저는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 분을 몰라 봤을 거예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되요 배워서 안되요 세상사람들은 예수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주여 주여 그런다고 절대 아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강단에서 그러잖아요 아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 가는 것은 아니죠 그 말씀을 또 무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심시켜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죠. 이 강단은 계속 주일 마다 경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나는 계속 주일 설교할 때마다 경고를 해야 합니다. 경고를 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들어야만 나중에 안 믿고 있다 환란에 넘어가면 그 때 깨달는 거예요 그 때 라도 깨달아서 회개 하는게 낫죠. 저는 그런 맘으로 설교합니다. 주일 설교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창조주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도 자신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시다. 그 어떻게 아느냐? 그 분이 말씀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6절 보겠습니다. 아니 주님도 그랬는데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8장 26절 나에게는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 되시니 나는 내가 그 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리는 그 때에야 그랬습시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예요 내가 내가 그인줄 알게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내아버지께서 내게 가

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 하노라 아들은 아버지께 절대 순종했고 또 성령님은 또 아들에게 순종했고 이래가지고 삼위 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 혼, 육이 있죠. 우리 영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혼이 순종할 때 우리 몸이 순종하게 되어있죠 영, 혼,육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찾아 보겠느냐?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꾸로 가는 사람이예요 몇 명 되게 하시옵소서 제자는 몇 백만명 되게 하시옵소서 이거야 말로 웃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엄청난 표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죠 2장 3장에 뭐라고 나오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 하신 것을 들을 지어다 13장 9절 가 봐도 나와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귀가 아니죠 이걸로 듣는게 아니죠 우리는 이걸 통로죠 통로 귀는 우리 안에 있죠 우리 혼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혼이 들어요 혼이 들을 때 귀를 통해 들리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천국의 신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랬죠 너희는 들을 귀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는 것을 그만 두게 하는 자는 그만 두게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 하시기 전에 에스겔보고 뭐라고 그랬죠 너 인자야 인자야 90 몇 번 나오죠 인자야 인자야 썬오브맨(son of man) 썬오브맨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도 스스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죠 그 때 썬오브맨(Son of man)은 대문자 썬이죠 이게 뭐죠 에스겔은 바로 오실 예수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했을 때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고 왕에게 기름부었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 분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졌죠 초림 때는 에스겔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보면 인자야 인자야 앞으로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인자로 갈 것이다 너도 내 아들처럼 내

말만 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자야 그러는 것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스런 호칭입니다. 에스겔서37장에 가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멋진 대화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 해야죠 주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은 무엇이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 만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그리스도의 강력한 모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사실은 인자다 인자의 표적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마지막 사역인 왕, 지금 대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때도 주님이 중보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언제 쉬세요 천년왕국이 일곱 번째 천년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안식이에요 그들이 6천년동안 고통을 받았죠 지난 4천년동안 고통을 받았죠 4천년이 됩니까? 3천 5백년 동안 그렇죠 고통을 받았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4천년이죠 고통을 받았는데 그들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 갈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때 예수가 만약 그들에게 안식을 줬더라면 다른 날이 없지만 그때는 여호수아가 주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란 분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셔 가지고 안식을 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도 마귀를 저 무저갱에 집어 넣고 비로소 쉬신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일곱째 날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셨고 그 날 일한 사람은 쳐 죽이고 나뭇가지만 주어도 불만 지퍼도 다 죽였어요 왜 이거 너희들 잊어 버리면 안식일 내가 와 가지고 너희 왕국을 이룰 때 내 왕국을 이룰 때 그 날을 기억해야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너희가 그 안식일을 믿어야만 참된 안식을 믿어야 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날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곧 오겠네 이 찬송을 거의 안 부르죠 불러

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주기도문을 외워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왜 못듣는 거예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 했죠 기도를 많이 해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도 에스겔처럼 때론 우리를 꿈쩍 못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라고 그럴 때는 담대하게 열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참 에스겔같이 고생을 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고생을 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증거 하다가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분명히 주님이 부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공중 재림 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주 예수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오신다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닳을 꽃아 놓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향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방주이신 참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다가 그 안에서 거하다가 혼인 잔치 준비하고 거하다가 환란이 있을 때 하늘에 올라가서 모두가 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뵙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